

◆ 會員社 動靜 ◆

LG産電(株), 중국 대련에 전력기기 종합생산단지 건설

LG産電(株)(代表:李鍾秀)가 전력기기사업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대련에 2천년까지 6,600만 달러를 투자, 대단위 전력기기 종합생산단지를 건설한다.

국내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대련 경제기술개발구에 대지 5만평, 연건평 2만평 규모로 건설되는 종합생산단지는 가동 초기에는 배전반(Switchgear), 몰드변압기(Mold Transformer), 진공차단기(VCB), 전자식안정기(Ballast)등 선진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4개 전략제품을 생산하고, 2천년까지 점차 생산 Item을 늘려가 전력기기 종합생산단지로 조성된다.

LG산전은 대련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역별로 주도되고 있는 중국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생산단지가 위치한 東北지역에 집중 공급해 초기사업기반을 구축한 후에 중국 최대 시장인 華北지역을 공략, 2천년에 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시장전략을 세워 놓았다.

또 LG산전은 생산제품을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 국가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식안정기는 동남아시아 판매와 함께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미국, 유럽시장에도 공급되며, 2~3년 후에는 한국으로의 역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대련생산단지는 향후 LG산전의 2005년 해외매출목표인 5조2천억원 가운데 36%인 1조9천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5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될 전력기기 종합생산단지는 중국 굴지의 부동산회사인 大連萬達集團과 공동으로 건설하는데, 양측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자본금 1,200만 달러 규모의 『大連樂金産電有限公司』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한편 LG산전은 '98년에는 전력기기사업의 중국진출 가속화를 위해 저압기기를 생산하는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등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국을 제2 내수시장화할 계획이다.

大韓電線(株), 해외 합작공장 본격 가동

大韓電線(株)(代表:兪彩濬)는 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0년대부터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합작법인을 설립, 현재 현지합작공장들이 속속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일먼저 진출한 北京의 「대경통신전람유한공사」. 총투자액 3천만달러, 자본금 1천2백만달러, 지분을 55% 참여로 중국 통신건설총공사등 당해국 6개社와 설립한 이 합작법인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양산체제를 구축케 됐다. 생산능력은 연간 통신케이블 4천톤, 광케이블 3천km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 북경에 이어 같은 해 10월 靑島에 합작 투자한 「청도청대전람유한공사」는 청도전람창 및 홍콩금보대전람유한공사와 총설비투자 규모 3천만달러, 자본금 1천1백80만달러, 지분 55% 참여로 설립.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을 비롯 알루미늄전선, 절연전선, 고무전선 등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합작공장은 연간 銅 6천톤, AL 2천4백톤을 소화해 내고 있다.

대한전선은 또 지난해말 청도전람창 소유지분의 40%까지 인수하면서 경영개선과 최신설비를 도입,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된다는 밝은 전망이다. 산동지역의 종합전선업체로 발돋움한 청도청대전람유한공사는 향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판도를 열어나간다는게 중장기 계획이다.

대한전선이 3번째로 진출한 해외법인은 印度의 TDT社. 총투자액 1천7백만달러, 자본금 5백40만달러 가운데 대한전선 참여지분은 63.5%, 나머지는 인도 Delton케이블 10%, 일본 Tomen社 26.5%로 구성돼 있다.

TDT 3개국 합작사는 수도인 뉴델리로부터 약 90km 떨어진 하리아나주 반월공단에 건설중인 케이블 제조용 銅롯드공장으로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10월부터 상업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약 5만4천톤 규모의 동롯드가 현지생산되는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대한전선은 이같은 해외에 투자한 현지공장들이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인도를 포함한 주변 東南亞 국가등 후발국들의 전력·통신망 계통화사업에 국제경쟁력 우위 선점업체로 확고히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朝一成業電機(株), 방글라데시 변압기 수출

변압기 전문생산업체인 朝一成業電機(株)(代表:金榮成)가 최근 방글라데시 RURAL전력청이 발주한 전력용 변압기 국제공개입찰에서 77만달러 상당의 물량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2월부터 입찰이 시작된 이번 발주물량은 그간 3번의 유찰을 거친후 올해 4월 조일성업전기가 1차입찰에서 낙찰된후 3차에 걸쳐 모두 77만달러 상당의 물량을 수주하게 됐다.

변압기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력기기가 국제공개입찰에서 낙찰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최근 변압기업체가 수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同社의 국제입찰에서의 낙찰은 동종업체에 상당한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起人시스템(株), 동기접속형 디맨드 컨트롤러 개발

起人시스템(株)(代表:李起元)가 최대 전력수요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동기접속형 디맨드 컨트롤러를 개발,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 신기술인증(NT) 마크를 획득했다.

기인시스템이 총 2억5천만원을 투입, 1년여만에 국내 처음으로 개발을 완료한 동기접속형 디맨드 컨트롤러는 디맨드 컨트롤러 본체와 동기접속장치, 원격단말장치, 채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 한국전력과의 거래용 계량기의 단자 및 봉인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15분 간격으로 수용가의 전력사용량과 디맨드 컨트롤러간의 최대전력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일제어선으로 최대 1백28개의 부하를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원격부하 차단방식을 채용, 설치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 10%의 피크전력 절감효과가 가능하고 별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예측전력 등 전력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밖에 시간대별 전력부하 제어가 가능하고 액정화면을 채용해 설정데이터의 수정 및 확인이 가능하다.

기인시스템은 이 제품의 개발과 함께 최근 「동기접속형 최대전력관리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관련특허 3건을 출원했다.

최대수요 전력감시 제어장치는 빌딩이나 공장 등의 전력수요 관리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로 전력수용가의 피크전력을 자동으로 감시, 목표 피크전력치를 초과할 경우 전력사용량이 많은 부하부터 자동으로 관리해 피크전력을 줄여주는 시스템이다.

기인시스템은 이 제품의 판매 목표를 80억원으로 책정,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帝龍産業(株), 전기분야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帝龍産業(株)(代表:朴鍾台)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개최한 '96년도 전기분야 품질경영실천결의 대회에서 봉화 분임조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1개업체의 11개 분임조가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5배 분임조가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6개 업체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인 '96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업체와 분임조 및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제룡산업(주) 봉화 분임조 / 변압기 조립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
- ▲우수상 ○국제전기(주) 셋별 분임조 / 변압기 증신작업 개선으로 불량 및 재작업 감소
 - 신한전기공업(주) 오투기 분임조 / 1차 배선작업개선으로 시간 단축
 - 동미전기공업(주) 낚시 분임조 / 방압관 연결 파이프 작업개선으로 공정감소
 - (주)대한트랜스 무궁화 분임조 / 고압권선 합침 건조 작업방법 개선으로 단선불량 감소
- 대웅전선 한솔 분임조 / 건조로 열손실 관리로 생산성 향상

(株)有裕, 고효율 BLDC 모터 개발

릴레이 및 아모퍼스코어업체인 (株)有裕(代表:鄭淳換)가 에어컨의 송풍량을 정밀제어할 수 있는 고효율 브러시리스DC(BLDC)모터를 자체 개발했다.

PC냉각용 DC펜모터를 시작으로 소형모터사업을 강화하고 나선 유유는 최근 일반적인 코어드 타입의 에어컨용 BLDC모터와 다른 방식인 코어리스타입의 20/30/50W급 등 세종류의 고효율 BLDC모터를 개발, 9월부터 양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유는 다음달까지 5억원을 투자, 김포공장에 월산 3만개 수준의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가전 3사 및 에어컨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8월말까지 1백 및 2백W급 대용량 제품도 개발, 품목을 다변화하는 한편 에어컨 이외에 청소기·세탁기·고급 환풍기·자동차용·냉장고 등으로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유가 협력선인 러시아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제품은 고풍성 네오디뮴계 희토류자석과 특히 더블디스크 구조로 형성, 효율이 80%로 높아 크기 및 중량을 기존 제품의 3분의 1정도로 줄일 수 있으며 소음도 45db로 강점을 지니고 있다.

▣ 회원업체 신규가입 및 변경안내 ▣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금동조명(주)	본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71-2 TEL : (062)953-8550 FAX : (062)953-8862 서울 :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금호전기(주)B/D TEL : 706-7871 FAX : 706-7876		신규가입
광림특장차(주)	본사 : 충북 청원군 현도읍 죽전리 65-11 TEL : (0431)60-9111 FAX : (0431)69-5080 서울사무소 : 서초구 서초2동 1355-8 중앙로얄B/D 2층 TEL : 3474-5811 FAX : 3473-1985		신규가입
	변경 전	변경 후	
(주)동남물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호 현대기림B/D 1410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18 현대기림B/ D 202호 TEL, FAX : 전과동일	서울사무소이전
동아일렉콤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167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167 TEL, FAX : 전과동일	주소변경
한양전기공업 (주)	서울 구로구 독산동 288-1 건국 B/D 405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33-14 (남동공단 22B-112) TEL : (032)814-0105 FAX : (032)815-0161	서울사무소 폐쇄